



20 신학부 보고

제103회기 신학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서창수
서 기 유용상

1. 조 직

- 1) 임 원 : 부장 서창수 서기 유용상 회계 신종철 총무 고창덕
- 2) 실행위원 : 정연철 최삼범 오정현 김증식 오명현 이순상 서문강 양병오 장대영 맹연환 반석창 최상태 진두석 박세광 최종천 박무용 이희중 최봉우 홍성현 전형주 김유식 박종호
- 3) 부 원 : 이강선 오인호 박신득 배병구 고태일 진용식 송기섭 정현민 박인혁 장기주 김용수 김성진 김성원 홍 길 황용규 이두형 원용식 방종국 정광호 주진만 문오현 모상규 박시구 심시용 이병택 이유승 김홍재 박창현 박윤성 김한중 김형래 진영화 윤재룡 최도훈 김현진 김갑천 이정화 이승평 서성현 김종학 조영록 이준행 박은식 윤동윤 이기은 이근재 라계동 김원철 유장춘 김광수 라호동 신현철

2. 회 의

- 1) 전체회의
 - (1) 신학부 임원 및 연구교수·목사 연석회의
 - ☞ 일 시 : 2018. 12. 18(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신학부 연구 위촉 교수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다.
 - 가. WEA 연구
 - 김요섭 교수(역사, 신대원) 정원래 교수(역사, 신대원) 라영환 교수(조직, 대학교)
 - 정승원 교수(조직, 신대원) 성남용 교수(선교, 선교대학원)
 - 나. 로마 가톨릭 연구
 - 라은성 교수(역사, 대학교) 이상원 교수(조직, 신대원) 김창훈 교수(실천, 신대원)
 - 김성욱 교수(선교, 선교대학원) 신종철 교수(역사)
 - 다. 기독교 단체 연구
 - 임종주 목사(역사, 대신대) -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용주 교수(역사, 안양대) - 성서한국
 - 이정훈 교수(울산대) - 청어람 이국진 교수(신약) - 복음과 상황
 - 권경철 교수(교회사, 총신대) - 좋은교사운동 박용규 교수(역사, 신대원)
 - 기독교인의(단체) 활동 - 이정훈 교수(울산대)
 - 라. 천부교 연구

서요한 교수(역사신학)

- ② 임원회 및 연구 교수 연석회를 12월 28일(금) 11시에 하기로 하다.

(2) 신학부 임원 및 연구교수·목사 2차 연석회의

㉮ 일 시 : 2018. 12. 28(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연구위원 교수들에게 총회 수입 안전에 대한 청원 사항과 연구 과제를 논의 설명하다.

- ② 연구위원 담당 교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다.

가. WEA 연구

김요섭 교수(역사, 신대원) 정원래 교수(역사, 신대원) 라영환 교수(조직, 대학교)

정승원 교수(조직, 신대원) 성남용 교수(선교, 목대원)

나. 로마 가톨릭 연구

라은성 교수(역사, 대학교) 이상원 교수(조직, 신대원) 오태균 교수(상담, 목대원)

김성욱 교수(선교, 선교대학원) 권경철 교수(역사, 총신강사)

다. 기독교 단체 연구

임종구 목사(역사, 대구푸른초장) - 교회개혁실천연대 (미정) - 성서한국

이정훈 교수(울산대) - 청어람 이국진 목사(신약, 전주예수비전) - 복음과 상황

신종철 목사(역사, 아신대) - 좋은교사운동 기독교인의(단체) 활동 - 이정훈 교수(울산대)

이영식 교수(역사, 총신일대원강사) -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라. 천부교 연구

서요한 교수(역사, 신대원)

- ③ 연구 원고는 4월 15일까지 받기로 하다.

(3) 신학부 임원 및 교수·목사 제1차 연구세미나

㉮ 일 시 : 2019. 6. 7(금)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신복음주의 단체에 대한 연구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 성서한국에 대한 발제 - 김성수 목사

· 청어람에 대한 발제 - 이정훈 교수

· 느헤미야에 대한 발제 - 이영식 교수

· 좋은교사운동에 대한 발제 - 신종철 목사

· 교회개혁실천연대(연구: 임종구 목사) 발제 - (대) 신종철 목사

(4) 신학부 임원 및 실행위원, 교수·목사 제2차 연구세미나

㉮ 일 시 : 2019. 6. 20(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발제와 질의응답).

가. 복음주의 단체 세미나 / 사회 - 서창수 목사



- a. 복음과상황 - 이국진 목사
- b. 교회개혁실천연대 - 임종구 목사
- c. 성서한국 - 김성수 목사
- d.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 이영식 교수
- e. 좋은교사운동 - 신종철 목사
- 나. 로마 가톨릭 세미나 / 사회 - 유용상 목사
 - a.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나타난 현대 가톨릭 교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이상원 교수
 - b.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인가? - 라은성 교수
 - c. 개혁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보았는가?(17세기부터 현대까지) - 권경철 교수
 - d. 로마 가톨릭의 이교 지정에 대한 선교학적 연구 - 김성욱 교수
 - e. 개혁주의 교리교육 입장에서 살펴본 가톨릭교회의 교리교육(예비신자 교육을 중심으로) - 오태균 교수
- 다. WEA 세미나 / 사회 - 신종철 목사
 - a. 한국교회의 WEA 논쟁과 지향해야 할 과제들 - 성남용 교수
 - b. WEA(세계복음주의연맹)의 역사와 활동 - 김요섭 교수
 - c. WEA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연구 - 라영환 교수
 - d. WEA의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대화에 대한 신학적 평가 - 정승원 교수
 - e. WEA와 한국교회 - 정원래 교수
 - f. WEA에 대한 연구 - 박용규 교수

(5) 신학부 제3차 연구세미나

☞ 일 시 : 2019. 7. 16(화)~17(수)

☞ 장 소 : 부산동원교회당

☞ 결의사항

- ① 가톨릭 연구 보고 요약본(5인) 내용을 발제하고 토론하다.
- ② WEA 연구 보고 요약본(5인) 내용을 발제하고 토론하다. WEA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기로 하다. 질의 문항과 내용은 이국진 목사로 작성하여 검토하기로 하다.
- ③ 기독교단체(6개 단체) 연구 요약본 내용을 발제하고 토론하다.
- ④ 연구 내용 요약본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다.

* 세미나 진행 16일 15시 ~ 17일 14시

(6) 신학부 제4차 연구세미나

☞ 일 시 : 2019. 8. 9(금) 13: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청어람에 대한 추가 논문 연구 발제를 신종철 목사가 발제하다.
- ② 이국진 목사가 6개 단체 추가 발제하다.
- ③ 가톨릭, WEA에 대한 최종 보고를 논의하다.
- ④ 교회개혁실천연대 및 청어람의 신학부 보고를 논의하다.

2) 실행위원회의

(1) 1차 실행위원회의

☞ 일 시 : 2018. 11. 1(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로마 가톨릭 연구의 건과 WEA 연구의 건은 총회 결의대로 임원회에 맡겨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키로 하다.
- ② 한국교회 일각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 1)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2) 교회 개혁 실천 연대 3) 성서한국 4) 좋은 교사운동 5) 청어람 6) 복음과 상황의 연구는 임원회에서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키로 하다.
- ③ 부천노회장 황선돈씨가 현의한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의 건은 확인하여 임원회에서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키로 하다.

3) 임원회의

(1) 1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9. 11(화) 14:30

☞ 장 소 : 반야월교회당

☞ 결의사항

- ① 102회기 총신 교수 연구비(총회 위임 안건)를 아래와 같이 지급키로 하다.
 - 가. 김길성 교수 80만원(연구논문 1편, 채규현 목사 관련 연구)
 - 나. 김창훈 교수 50만원 : 연구논문 1편
 - 다. 김성태 교수 50만원 : 연구논문 1편
 - 라. 신국원 교수 50만원 : 연구논문 1편
 - 마. 박용규 교수 50만원 : 연구논문 1편

(2) 2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11. 1(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제103회) 수임 안건을 확인하다. 로마 가톨릭 및 WEA 연구의 건, 기독 단체(6개 단체) 연구의 건, 천부교 연구의 건을 실행위원회 안건 상정키로 하다.
- ③ 다음 임원회는 11월 14일 10:30에 하기로 하다.

(3) 3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11. 14(수) 10:30

☞ 장 소 : 대전판암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총회(103회) 수임 안건 연구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다.
 - 가. WEA 관련 연구 교수



- a. 역사신학 / 김요섭(총신신대원), 정원래(총신신대원)
- b. 조직신학 / 나영환(총신대학교), 정승원(총신신대원)
- c. 선교신학 / 성남용(목회신학전문대)
- 나. 로마 가톨릭 연구 교수
 - a. 역사신학 / 박영실(총신대학교), 라은성(총신대학교)
 - b. 조직신학 / 이상웅(총신신대원), 이상원(총신신대원)
 - c. 실천신학 / 김창훈(총신신대원)
- 다. 기독교 단체(6개 단체) 연구 교수
 - a. 박용규(총신신대원, 역사신학)
 - b. 김길성(총신은퇴교수, 조직신학)
 - c. 임종구(대신대학교, 역사신학)
 - d. 이승구(합신대학교, 조직신학)
 - e. 김용주(총신강사, 역사신학)
 - f. 이정훈(울산대)
- 라. 천부교 연구 교수
 - a. 서요한(총신신대원, 역사신학)

③ 다음 임원회는 12월 18일로 하고 연구위원·교수연석회 하기로 하다.

가. WEA 오전 10시 30분, 로마 가톨릭 13시 30분, 기독교 단체 14시 30분, 천부교 10시 30분

(4) 4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12. 18(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총회 수임 신학부 연구 위촉 교수 중에 로마 가톨릭 연구 역사신학 박영실 교수와 조직신학 이상웅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교체하기로 하다. 기독교단체 연구 김길성(조직신학) 교수도 개인 사정으로 교체하기로 하다.

(5) 5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2. 13(수) 11:00

☞ 장 소 : 대전판암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총회 수임 안건 중 기독교단체 “성서한국” 연구위원은 김성수 목사(공덕중앙교회)로 선정하다.
- ③ 총회 103회에서 결의한 사순절 용어의 건은 결의 내용을 전국 노회에 공문을 보내어(발송) 알리기로 하다.
- ④ 다음 임원회는 3월 20일(수) 11시에 하기로 하다.

(6) 6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3. 20(수) 11:00

☞ 장 소 : 대전판암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총회 수입 안전 연구 위촉 교수들에게 중간 점검 하기로 하다.
- ③ 수입 안전에 대한 연구 세미나를 6월 17-18일 자체적으로 열기로 하다.
- ④ 연구비의 부족으로 추경 예산을 재정부에 청원키로 하다.

(7) 7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5. 8(수) 11:00

㉮ 장 소 : 대전판암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연구 안전 원고를 검토하다. 연구 중이어서 제출하지 않은 원고를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다.
- ③ 다음 임원회를 5월 29일(수) 11시 대전 판암교회에서 갖기로 하다.
- ④ 기독 단체 연구 교수들과 임원회 연석하여 연구 주요 발제를 듣고 토론키로 하다.
- ⑤ 신학부 자체 세미나(실행위원)를 6월 24일(월) 오전 10:30부터 열기로 하다. 로마 가톨릭 연구 발제, WEA 연구 발제, 기독 단체 연구 발제를 진행키로 하다.
- ⑥ 가톨릭, WEA, 기독 단체 연구 내용 도서 발간을 위하여 총회에 추경을 신청키로 하다.

(8) 8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5. 29(수) 11:00

㉮ 장 소 : 대전판암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신학부 자체 세미나(실행위원 및 연구위원)를 6월 26일(수)로 변경하기로 하다.
- ③ 연구 논문 내용을 검토하여 점검하기로 하다.
- ④ 추경 예산(연구 세미나 및 도서 발간)의 내용을 서기에게 맡겨 구체적으로 청원하기로 하다.

(9) 9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6. 7(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신학부 자체 세미나(실행위원 및 연구위원) 일정을 6월 20일(목)로 하기로 하다.
 - 가. 임원회의 10:30 - 서요한 교수 발제
 - 나. 발제 및 토론
 - a. 기독단체 연구 발제 11:00~12:30 - 6개 단체
 - b. 로마 가톨릭 연구 발제 13:20~14:20 - 연구 교수 5인
 - c. WEA 연구 발제 14:20~15:20 - 연구 교수 5인
- ③ 신학부 세미나에 현의한 노회에도 통지하여 참석하기로 하다.



(10) 10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6. 20(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2부 세미나는 오전 1부 - 천부교(서요한 교수) 2부 - 복음주의 단체
오후 3부 - 가톨릭 4부 - WEA로 진행하기로 하다.
- ③ 서요한 교수가 천부교 연구논문을 발제하다.

(11) 11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6. 26(수) 11:00

☞ 장 소 : 대전판암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신학부 연구 보고를 위한 책자를 발간하여 총대들에게 배포하기로 하다.
제1권 로마 가톨릭(5인 논문)
제2권 WEA, 천부교, 기독교단체(6개) 연구(12인 논문)
책자 발간을 위하여 추경 예산 1,5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③ 연구 보고를 위한 임원 세미나를 7월 16-17일에 갖기로 하다.
연구 교수 중 이국진 교수와 임종구 교수로 전반적인 내용으로 발제하기로 하다.

(12) 12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7. 16(화) 14:00

☞ 장 소 : 부산동원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신학부 연구 보고 논문 책자 발간을 위하여 추경 예산을 추가로 500만 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 ③ 신학부 연구 논문 및 발제자 17인에게 1인 50만 원씩 연구 발제비를 지급하기로 하다.
(가톨릭 5인, WEA 5인, 기독교단체 6인, 천부교 1인)
- ④ 임원 세미나에 강사로 수고한 임종구 목사, 이국진 목사에게 강사로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다.

(13) 13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8. 1(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복음단체 청어람에 대한 연구는 신학부 자체 연구를 신종철 목사에게 맡겨 논문 연구하여 종합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논문 연구비 및 발제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 ③ WEA에 질의하는 질의문에 가톨릭의 개종금지 합의 문제를 추가하기로 하다.
- ④ 책자 발간의 건은 가톨릭, WEA, 천부교는 총회출판국에, 6개 단체 연구 책자는 사설 출판에 (보고용) 견적 의뢰하기로 하다.

- ⑤ 청어람 논문 연구 발제 및 가톨릭, WEA, 6개 단체 최종 임원 세미나를 8월 9일 오후 1:30에 열기로 하다. 연구자 이국진 목사, 임종구 목사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발제를 하기로 하다. 임원회 및 예배는 12시로 하기로 하다. 당일에 복음주의 6개 단체가 요청한 면담을 임원 및 연구자 일부와 함께하기로 하다.
- ⑥ 책자 발간(가톨릭, WEA, 천부교)에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인사말과 신학부장 서창수 목사의 발간사를 요청하기로 하다(6개 단체 포함 2권).

(14) 14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8. 9(금) 12: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신학부 총회 연구 보고서에 논문 연구자 성명과 제목을 수록하여 보고 하기로 하다.
- ③ 총회 출판국에 연구 논문 발간서로 제1권 가톨릭, WEA, 천부교, 제2권 6개 단체를 의뢰하기로 하다.

(15) 15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9. 8. 13(화) 16:30

☞ 장 소 : 대전판암교회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WEA에 공개 질의한 WEA의 답변서를 총회 보고서에 넣기로 하다.
- ③ 기독 6개 단체의 답변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기로 하다.
- ④ 가톨릭, WEA, 기독교 6개 단체에 대한 신학부 보고서를 작성하다.



수임안건 연구 결과 보고

1. NCCCK와 로마 가톨릭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의 배교행위 규정과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연구의 건

1) 로마 가톨릭 제1연구

(이상원 교수,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나타난 현대 가톨릭 교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현대가톨릭교리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역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 에 집약되어 있다.

신 인식에 있어서 이성의 기능. 가톨릭 교리는 신 인식에 있어서 이성은 흠 없는 신 인식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에 개혁신학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신 인식기능에 있어서도 심각한 손상을 가하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참된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다만 피조세계를 보고 우상숭배 정도의 수준에서 신을 인식할 수 있을 뿐임을 말한다.

대죄와 소죄. 가톨릭 교리는 대죄와 소죄를 구분했으나 성경은 모든 죄가 다 죽을죄로서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지 않는다.

성화상 공경. 가톨릭 교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성화상 공경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회적 사건으로서 역사상 재현이나 반복이 불가능한 사건이며, 성화상 공경은 제2계명을 범하는 죄로 파악한다.

마리아·성인·천사공경. 가톨릭 교리는 마리아를 평생 무흠하며 동정성을 유지한 여인으로 높인다. 가톨릭 교리는 하나님 흠숭과 마리아 공경을 구분하고 있긴 하지만,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마리아도 부활 승천하여 신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자로 인식하는 등, 사실상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이자 초인적인 존재로 신격화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일 뿐, 다른 인간들과 같은 죄인이며, 예수님을 낳은 후 바로 결혼생활에 들어가 동정성을 상실한 여자였을 뿐이다.

교회의 네 가지 속성들. 가톨릭 교리는 로마교회라는 유형교회를 보편교회로 간주하고 있으나 개혁주의 신학은 무형교회에서 일차적으로 보편교회를 찾는다. 가톨릭 교리는 로마 교회가 사도성을 계승했다고 주장하지만 바울 이후에 사도직이 계승되지 않았다. 가톨릭 교리는 교회가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의 선업 안에서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마리아와 성인들이 교회의 거룩성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 가톨릭 교리는 천국의 성인들이 연옥과 현세의 성도들을 도울 수 있고, 현세의 성도들이 연옥의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연옥은 실재하지 않으며, 천국과 현세와는 통공이 불가능하다.

일곱 가지 성사들. 가톨릭 교리는 일곱 가지의 성사들과 준성사들로 구성된 성례 체계를 수립했으나 성경은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제외한 어떤 성사도 성례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톨릭 교리는 물세례 그 자체가 구원의 은총을 주되 다만 시초적 은총을 줄 뿐이며, 이 은총은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개혁주의 신학은 물세례는 상징일 뿐 성령세례가 구원의 은총을 주며, 이 은총은 완전함을 말한다. 가톨릭 교리는 십자가의 희생사건이 성찬 때마다 재현된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은 화체설로 귀결된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하고 단회적인 사건으로

서 역사 안에서 재현될 수 없음을 말함과 동시에 성찬시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함을 말한다.

사후 세계. 가톨릭 교리는 사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지며, 성인들은 천국에 바로 들어가고, 일반 신자들은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성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과 지옥 이외에 제3의 처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2) 로마 가톨릭 제2연구

(라은성 교수,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인가)

일부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을 적그리스도와 이단자로 정죄한 것에 대한 반대견해나 수정된 견해를 토로하곤 한다. 그 이유는 로마 가톨릭이 복음적으로 변했다는 전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더하면 더하지 빼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한 이상 세상 끝까지 이단으로 본다. 과거의 로마 가톨릭은 오늘의 로마 가톨릭과 여전히 동일하다. 그들이 변하는 척할 뿐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을 연구한 결과이다. 만일 이런 점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여 그들이 변했을 것이라고 함부로 가정하여 이단이든 사교이든 정죄하지 않은 자들은 종교개혁 정신을 부정하거나 개혁신앙을 포기하는 자일 것이다. 로마 가톨릭은 변하는 척할 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임이 틀림없다.

만일 로마 가톨릭이 이단이라면 세례받은 자의 신앙이 적어도 삼위일체 신앙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세를 개혁교회는 인정해야 한다. 세례의 효력은 받은 자의 신앙고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단이나 사교에서 더 멀리 나가서 기독교가 아니라면 그들의 영세는 인정될 세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로마 가톨릭주의에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이 정통적인지 점검해야 한다. 과연 그들이 1~4대(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에페소스 및 칼케돈)에 걸친 범종교회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신학적으로 점검할 때 그들은 4대 종교회의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기독교만 아니라 이단도 아니라 사교일 뿐이다. 기독교를 가장한 영적 늑대일 뿐이다.

그들의 시작을 점검해볼 때 정교 유착에서 비롯하여 로마교회를 삼키고 로마 가톨릭교회로 둔갑하여 역사 속에 등장했다. 그들이 이단자라도 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사람을 화형을 자행할 수 없고, 수없이 더러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이런 범죄가 현재 없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교회는 변했다고 한다면 착각이다.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과거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몇몇 학자들에게만 알려졌다. 착각하여 만일 기독교 범주에 넣는다면 중세시대에 범한 것을 적어도 교회가 행할 수 있다는 조금의 전제를 하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주장할 것인가? 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거나 잔학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주장할 것인가? 로마 가톨릭교회는 로마교회의 가면을 쓰고 역사 속에 등장했을 뿐이다.

흔히들 로마 가톨릭교회와 초대교회 때의 로마교회를 헛갈려 한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조금이라도 교회 역사를 점검해보면 로마 가톨릭교회와 로마교회는 엄연히 다르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신성로마제국과 결탁하여 또는 유착하여 만들어진 종교단체일 뿐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일 뿐이다. 여기서 중세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진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하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는지 알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도 로마 가톨릭교회를 살피고 로마 가톨릭주의를 연구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로마 가톨릭교회를 닮아가지 말아야 하지만 아쉽게 슬프게도 닮아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정체성을 파헤쳐 온 교회에 알리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라 여긴다.



3) 로마 가톨릭 제3연구

(권경철 교수, 개혁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보았는가_ 17세기부터 현대까지)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전통은 로마 가톨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을 이교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개혁신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다.¹⁾ 17세기와 18세기에 살았던 투레티니와 에드워즈는 종교개혁 전통에 따라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일컫는 반면, 19세기와 20세기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선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대체로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이면에는 시대 상황의 변화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17-18세기에는 정통주의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국가 교회 차원에서 로마 가톨릭에 맞서 싸우다보니 로마교회와 교황을 주적으로 하여 다소 과격해지는 경향도 있었던 반면, 19세기와 20세기에는 정교분리의 원칙, 근대정신과 자유사상, 그리고 가톨릭 교도들의 이민을 통한 유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다소 누그러진 태도로 로마 가톨릭을 논박하게 되었다. 물론 쏜웰이나 뵈트너의 경우처럼, 19-20세기에도 그 전 시대처럼 강하게 로마 가톨릭을 논박한 신학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말이다.

만일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선포하게 되면 우리는 투레티니와 에드워즈의 전통을 따르게 된다. 반면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선포하지 않고 그 신학적 오류만을 지적한다면, 우리는 핫지와 메이천 등의 구프린스틴 전통 혹은 신칼빈주의 전통을 따르게 된다.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역사적인 개혁신학에서 그 입장을 지지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핫지나 반틸이 지적하듯이, 로마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이교주의와 기독교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어 왔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하겠다고 생각하여 가톨릭을 단순히 이교로 지정할 경우, 가톨릭의 세례와 보편교회 신앙고백 등등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난제에 봉착할 수 있다. 반대로 가톨릭도 기독교라고 성급하게 선포해버리면, 로마교회의 성인숭배, 공로주의, 전통주의 등에 있는 혼합주의적이고 이교적인 요소를 견제하기 어려우므로,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듯한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별카우어 정도만 제외하면 전통적인 개혁신학자들은 모두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혁신학과 로마 가톨릭이 신학적으로 상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개혁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에 대해 취했던 부정적인 입장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구프린스틴이나 신칼빈주의 전통처럼 로마 가톨릭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이교요 적그리스도라고까지는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에큐메니컬 운동은 거부하되, “이교”라는 말의 모호성과 사안의 복잡성, 그리고 선배 개혁신학자들의 전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사료된다.

4) 로마 가톨릭 제4연구

(오태균 교수, 개혁주의 교리교육 입장에 살펴본 가톨릭 교회의 교리교육_ 예비 신자 교육을 중심으로)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혁주의 교리교육의 관점에서 가톨릭 교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교리에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개신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칼빈의 신학에 충실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교리교육을 실시하듯이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은

1) 이교라는 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단의 가르침을 가리킬 수도 있고, 기독교 외의 종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일 수도 있다. 이런 모호성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paganism에 대해서만 이교라고 부르고 heresy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부르기로 용어를 정리하였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Catechimus Catholicae Ecclesiae)에 수록된 교리들을 자신들의 표준 교리도 따르고 있다. 위의 교리서들을 중심으로 개신교와 가톨릭교회의 교리교육을 검토한 결과 대략적으로 4가지 범주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하나님 중심 강조 vs. 인간 중심: 가톨릭교회는 주일 성수에 대해 신자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도 토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본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편리한 시간에 미사에 참석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자면 신자들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종교개혁이 후 청교도들이 보여주었던 주일 성수 전통에 크게 어긋난 신앙생활 지도 (guide)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사 문제를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가톨릭교회는 그 시대의 상황과 타협한 흔적이 보인다. 본래 한국 초기 가톨릭교회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우상숭배 문제로 규정하고 철저히 금하는 신앙적 태도를 보였으나 아시아에서의 복음전파의 문이 닫히는 것을 우려해 타협안을 찾게 되었다.

둘째, 교회에서의 직분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가톨릭교회는 예비신자 교육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때로는 예비 신자들에게 개신교 목회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셋째,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 수용과 십계명에 대한 차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받아들인 개신교회와는 달리 가톨릭교회에서는 성경을 총 73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7권 많은 4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십계명과 개신교에서의 십계명에 차이가 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20절,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분류하기에 따라서 10개, 혹은 12개까지도 가능하다.

넷째, 마리아론 (Marialology)에 가르침. 가톨릭교회가 예비신자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마리아론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마리아에 대해 성경의 묘사 이상으로 과장되고 왜곡된 공경의 모습이다. 가톨릭교회는 마리아를 교회의 모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모상을 통해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또한 본질적인 능력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훼손할 수 있다. 서울, 광주, 대구, 수원, 부산, 대전, 인천 등지에 소재한 가톨릭 신학교 조직신학 중 교의신학 가운데 마리아론 경우 2007년도 교과과정에 비해 2018년도 교과과정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과 교리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작금의 한국사회는 이미 기독교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 싫증을 느끼는 기독교후기시대 (Post-Christendom Age)라는 위협적이고도 도전적인 새로운 환경에 처해있다. 이에 개신교, 가톨릭은 이런 시대적 위중함 앞에서 과거와 같이 서로 비판하고 반목하기보다는 서로 건설적인 대화와 교류의 장을 통해 본래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역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5) 로마 가톨릭 제5연구

(김성욱 교수, 로마 가톨릭의 이교 지정에 대한 선교학적 연구)

2018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부는 총회 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로마 가톨릭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와의 배교행위 규정과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헌의안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로마 가톨릭의 이교지정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교단 헌법의 정치 총론에서 로마 가톨릭교회를 구교(구파)로 인정하고 있으며,²⁾ 교단 신학과 신앙을 같이 하는 미국의 OPC와 PCA가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 가지는 입장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이교 지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하였다.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³⁾

김길성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요약하면, 지난 200년 동안의 개신교회의 로마 가톨릭 영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합중국장로회(PCUSA) 총회의 결의는 1830년대에 가톨릭교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지난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져 왔으나, 1981년 미국의 보수적인 장로교총회(RPCES)의 결정은 다시 로마 가톨릭의 영세를 인정하여 입교문답을 통해 입교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통합측 총회 역시 로마 가톨릭의 영세를 인정하고 재세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였는데, 이러한 통합측의 결정은 에큐메니칼의 연합운동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김길성은 주장하였다.⁴⁾

만일 로마 가톨릭의 영세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를 줄 경우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던 재세례의 경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⁵⁾ 존 칼빈은 그 당시 재세례파들이 정식으로 받은 세례를 부인하고 재세례를 고집하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삼위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누구로 말미암아 베풀어졌다 할지라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였다.⁶⁾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각종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이 참된 교회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교회를 여전히 교회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세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날 주께서 파괴된 가운데서도 남아 있도록 만드신 교회의 흔적들이 교황주의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 주님은 언약의 증거로서 거기에 세례가 유지되도록 하셨다. 주님 자신의 입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것으로서 사람들의 불경건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게 하신 것이다”(4권 2장 11).⁷⁾

아울러 한국의 극단적인 이단교리를 주장하는 일부 종파들도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회의 로마 가톨릭 이교결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⁸⁾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 가톨릭 평가”(Evaluation of Roman Catholicism)는 전체 300여 페이지 가운데 처음 30여 페이지만 있고, 나머지 다른 것은 주소불명의 가톨릭비판에 대한 글을 실어서 전체가 마치

-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개정판)』, 147: “주후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3) 김길성, “NCCK와 로마 가톨릭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의 배교행위 규정과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건에 대한 연구,” 총회신학부편, 『개혁신학과 교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8), 164: “우리 총회의 신앙고백서의 원문을 채용하고 있는 미국의 OPC와 PCA 두 교단 모두가 로마 가톨릭의 영세를 인정하거나 권고하는 입장을 취하되 최종결정은 당회에 맡기는 결정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정치 총론에서는 로마 가톨릭교회를 구교 또는 구파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로마 가톨릭교회를 이교로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도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와 신학과 신앙을 같이하는 미국의 OPC와 PCA가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 갖는 입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김길성, “NCCK와 로마 가톨릭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의 배교행위 규정과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건에 대한 연구,” 총회신학부편, 『개혁신학과 교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8), 119-164; 박용규, “로마 가톨릭의 영세와 개혁주의 관점에서 세례의 신학적 정립,” 『총회신학부 제출보고서』 부록, 2016, 1-19.
- 5) Michael Horton, *The Christian Faith*, 『언약적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 조직신학』, 이용중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795.
- 6)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IV: 15: 16-17:
- 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V, Chapter 2, 11: “First, he maintained baptism there, a witness to this covenant; consecrated by his own mouth, it retains its force despite the impiety of men.”
- 8) Martyn Lloyd Jones 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사상 평가』, 정동수역, (서울: 그리스도예수안에, 2015).

로이드 존스의 글 같은 속임수를 보여주는 책이다.

재미개혁주의 신학자 서춘용목사도 로마 가톨릭에 대한 비판은 존 거스트너(John H. Gerstner)의 주장처럼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거스트너(John H. Gerstner)는 가톨릭에 대한 개신교들의 지녀야 할 6가지 자세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로마 가톨릭에 대한 비판은 겸손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둘째, 개신교신자는 로마 가톨릭 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대는 영적으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넷째,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인들을 참된 교회로 나오도록 초대해야 한다.⁹⁾ 서춘용목사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요약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¹⁰⁾ 첫째로, 로마 가톨릭은 설립자나 시작이 없다. 둘째로, 로마 가톨릭의 역사는 항상 기독교의 생활과 혼합되어 있다. 셋째로, 트리엔트 종교회의까지 교의의 제한과 가톨릭의 특성이 잘 정의되지 않았다. 넷째로, 트리엔트 종교 회의 이후에 가톨릭은 초대교회 위대한 저자들과 신학자들의 교리 외에 어떤 새로운 근본 교리들을 첨가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Norman Geisler와 Ralph E. MacKenzie는 로마 가톨릭과 복음주의의 양 진영의 교리적 동의 영역과 교리적 상이영역, 그리고 실천적 협력 영역으로 나누어 진지하게 연구하여 발표하였다.¹²⁾ 교회 역사에서 히포의 감독 성. 어거스틴(St. Augustine, 354-430)과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의 신학적인 열매가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게 미친 영향이나,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 Kempis, 1380-1471)의 “그리스도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고 “팡세”(Pensees, 사색)의 저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의 영향력, 그리고 아직도 함께 예배 때 사용하는 수많은 중세의 찬송가와 종교개혁의 찬송가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이교지정에 대한 판단에 신중할 것을 주장한다.

성남용교수는 선교적 관점에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비판과 결정 시에 개혁주의적 접근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로, 정치적인 허수아비 논법(straw man argument)을 피해야 한다. 둘째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인격이 아닌 특정한 내용만 비판해야 한다. 셋째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양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로, 위협에 대해 경고하되 좋은 점은 경청하고 배워야 한다. 다섯째로, 성경적 진리에 충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의 범주와 경계를 정해서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¹³⁾ 결국 로마 가톨릭의 이교지정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적인 맥락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2019년 6월 3일) 합동측 교회인 열린교회(김남준목사)의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에 강연한 영국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는 그의 저서인 “기독교 그 위험한 역사”에서 종교개혁당시의 교회 역사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반가톨릭이 결코 개신교의 정체성이 될 수 없으며, 처음부터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존 칼빈(John Calvin)도 가톨릭과 정교회를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¹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신

9) John H. Gerstner, *A Primer on Roman Catholicism*, (Morgan, Soli Deo Gloria, 1955), 40-41.

10) 서춘용, 『교회와 이단』, (서울: 크리스찬서적, 2010), 184-85.

11) Luis Padrosa,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Religion in a Changing World*, (Chicago: Moody, 1971), 373.

12) Norman L. Geisler, and Ralph E. MacKenzie, *Roman Catholics and Evangelicals: Agreement and Differences*, 『로마 가톨릭주의와 복음주의』, 라은성역, (서울: 그리스심, 2003).

13) 성남용, “이머징교회 운동에 대한 개혁주의 선교신학적 비평,” 『한국선교 KMQ』, 제45권(2013): 138-144.

14) Alister McGrath,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The Protestant Revolution: A History from the*



학적인 유산에 따라, 철저한 성경중심적인 개혁신학의 위상과 신학의 방법에 따라서, 합동교단은 로마 가톨릭의 이교지정의 과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급한 결정은 장자 교단의 위상과 진로에 많은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과격한 종파들처럼 무분별하게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는 계기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이하 WEA)와의 교류 금지의 건

1) WEA 제1연구

(김요섭 교수,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역사와 활동)

20세기 급속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통해 지구촌은 명실상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기독교회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연대와 연합을 모색했다. 20세기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도했던 에큐메니칼 운동과 근본주의의 분리주의적 성향을 반성하고 성경적 기초와 복음 선교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 연합의 요청에 응해 복음주의 진영은 세계복음주의협의회(World Evangelical Fellowship)를 1951년 결성했고 2002년에 그 명칭을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으로 변경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은 1846년 런던에서 결정된 복음주의연맹(The Evangelical Alliance)을 이어받았다고 말한다.

먼저 복음주의연맹은 19세기 영국의 형식화된 국교회와 현대주의 사상의 확대, 또 유럽의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1846년 런던에서 결성되었고 1912년에는 세계복음주의연맹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했다. 이 단체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에 기초해 바른 신앙 확립과 신앙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1942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복음주의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을 결성했다. 이 연합은 한편으로는 20세기 현대주의의 도전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격한 근본주의자들의 분리주의를 극복하려 했다.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정통 신앙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교회가 속한 당시 사회와 문화를 개혁하고 바르게 하려 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동의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51개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복음주의연합에 동참했다.

영국의 세계복음주의연맹과 미국의 복음주의연합(NAE)은 처음부터 조직과 운동의 국제적 확대를 시도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새로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함께 연합 활동의 진로를 모색했다. 그 결과 1951년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암스테르담에서 국제 복음주의자 회의(International Convention of Evangelicals)가 개최되었고 세계복음주의연합을 결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 스토틀와 데인이 빌립보서 1장을 기초로 제시한 조직의 목적은 복음주의 운동의 세 가지 방향을 천명했다. 이는 첫째는 복음의 확장, 둘째는 복음의 변호와 확인, 셋째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였다.

세계복음주의연합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2001년 그 명칭을 세계복음주의연맹으로 변경하고 국제적 차원의 확장을 도모했다. 현재 세계복음주의 연맹은 스스로 “연맹”과 “네트워크”임을 자처한다. 먼저 “연맹”으로서는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을 대표하여 매년 열리는 세계기독교 연합회 대표자 대회에 복음주의 운동을 대표하여 참여한다 말한다. 또 “네트워크”로서는 다양한 지역과 국가의 복음주의 국가들의 필요와 이해들을 토론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고 밝힌다. 연맹 내의 다양한 신학적 차이점에 대한 일치된 이해를 도출하기 힘든 약점, 충분한

재정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여전히 서구 중심적인 조직이라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체는 복음의 핵심적 가르침을 지키고 그것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조직화하려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계복음주의연맹은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연맹과 20세기 미국의 복음주의연합이 제시한 신앙고백을 계승해 자신들 역시 20세기의 현대주의 혹은 21세기의 탈현대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음을 표방한다. 따라서 세계복음주의연맹이 활동들이 이 연맹이 표방하고 있는 신앙고백의 내용에 얼마나 충실한가의 여부를 이 단체의 현재 상황과 방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WEA 제2연구

(라영환 교수,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신학적 입장에 관한 연구)

복음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적 유산 위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복음주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경험함과 동시에 과학적 사고와 합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이 직면한 20세기는 자신감에 넘쳤던 19세기와 달랐다. 복음주의적 신앙을 고백하는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대적 과제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WEA이다. WEA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 그리고 기독교 영향력의 쇠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태동되었다. WEA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교파와 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동보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제휴 관계이다. WEA는 교리적 동맹이 아닌 사역적 동맹단체이다. WEA가 사역적 동맹단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향후 WEA와 관계설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WEA는 근본주의적인 반문화주의와 분리주의를 배격하고 세상속으로 들어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의 시도에 우려가 되는 지점도 있다. 비록 WEA가 교회의 일치추구를 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WCC와 가톨릭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우려가 된다.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WE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교리적인 포용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 기우일 수는 있지만 교리적 포용성에 대한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의 지적은 복음주의 연대운동에 있어서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속한 정통 기독교는 핵심교리의 왜곡을 한 번도 사소하게 취급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진리를 진리답게, 잘못된 교리에 대한 거부를 입으로 분명히 표현하지 않으며, 결국 미래 세대와 복음 간에 담을 쌓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20년 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때의 지금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할지 모른다. 순결한 삶과 바른 신학으로 인도하지 않는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걱정하며 다가가지 않는 굳은 정통주의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연대를 시도할 때마다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WEA는 향후 WCC 그리고 가톨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선부른 연대는 자칫하면 나쁜 연대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WEA가 모더니즘의 도전과 기독교의 영향력 상실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함께 연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세상속에 들어가 복음을 실천하고자 한 것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3) WEA 제3연구

(정원래 교수, WEA와 한국교회)

WEA와 한국교회의 관계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수렴된다. 첫째는 WEA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따른 관계의 단절을, 둘째는 WE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관계의 지속을 주장한다.

먼저 관계의 단절을 지속하는 입장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통한 WEA와의 관계설정의 모호함이다. WEA 가입과, 2014년 계획되었던 서울총회의 무산은 모두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특히 한기총 산하 교단의 공감대와 동의의 부족, 그리고 한기총이 여러 이슈의 중심에 서며, 합동교단을 포함한 많은 교단의 탈퇴를 낳았다. 이는 교단과 WEA와의 관계설정에 부정적 요소이다.

둘째는 WEA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들에 대한 인정여부이다. 본 교단에서 의구심을 갖는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은 WEA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셋째는 WEA가 보여주는 신학적 태도들이 문제로 여겨진다. WEA는 신복음주의자들, 혹은 WCC와 로마 가톨릭과 동일한 노선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 세 단체가 함께 선언한 <다종교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증거>라는 문서는 분명한 증거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WEA에 대한 비판에 긍정하는 자들은, 먼저 WEA는 역사적으로 복음주의 전통의 맥락을 잇고 있으며, 복음주의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삶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로 WEA와의 관계설정의 문제점은 한국교회 내부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여긴다. 셋째로 신학적인 문제에서 WEA를 신복음주의로 진단하고, 신복음주의의 부정적 요소로 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신복음주의 역시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기 때문이며, 신복음주의자들의 정체성을 사회적 활동을 위해 복음의 양보로 이해하는 것은 신복음주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WEA와 WCC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함께 선언한 <다종교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증거>는 신앙적인 대 원칙을 선언하고 종교다원주의 사회나, 개종전도의 금지로 읽는 것은 문서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들을 고려할 때 필자의 견해로 현재 WEA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역사적 정황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한 면에서만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의견의 수렴도 가능하지 않으며 동의와 지지를 받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동시에 현재 제기된 여러 이슈로 인해 전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WEA의 <신앙고백>과 그 활동이 현재와 동일하다면, WEA와의 관계는 전면적인 수용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며 복음 사역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설정함이 설득력이 있다고 여긴다.

4) WEA 제4연구

(정승원 교수, 『다종교 세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실행을 위한 권고』 및 『로마 가톨릭과 세계복음주의연맹 사이 국제 협의(2009-2016)』 보고서에 대한 평가)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기본적으로 보수 신앙 전통을 따른다. WEA의 신조 (Mission Statement)를 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지난 30년부터 WEA이 로마 가톨릭 및 WCC와 대화와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기존의 보수 신앙 노선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보수 신앙 노선을 유지하되 세속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 등이 팽배한 세상을 복음화하려는 차원에서 가지는 선교적 공조 내지는 협조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실 WEA는 교단이 아니다. 일종의 협의체이다. 전통적 역사적 개혁주의에서 있는 합동 교단이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주의를 따르지 않는 다른 교단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또 가입해서도 아니 된다. 그러나 WEA는 교단이 아니라 협의체이다. 비록 개혁주의처럼 성경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66권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와 교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 개혁주의 정신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사실 복음주의(evangelicalism) 자체가 어떤 보편적이고 일관적인 교리나 고백서나 신조를 정하여 따르지는 않는다. 복음주의는 오히려 종교적 경험이나 복음적 열정이나 복음 전도에 더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개혁주의를 특징짓는 교리나 고백서나 신조들을 기준으로 WEA의 행보나 입장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복음주의는 교리나 신학보다는 적용, 사역, 삶, 실천 등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WEA를 평가할 때 교리나 신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WEA의 설립 목적, 방향, 사명, 비전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WEA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명과 비전”(Mission and Vision)을 보게 되면 WEA의 설립목적이나 추구하는 방향은 교리나 신학의 순수성보다는 선교, 전도, 실천, 참여 등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WEA가 WCC나 로마 가톨릭과 대화하며 교류하려는 것은 WEA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WEA를 평가함에 있어서 WEA의 목적과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 WEA의 신학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WEA의 모든 행보가 개혁주의의 눈으로 볼 때 당연히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 세계선교와 구제를 위해 그리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과학 및 기술 만능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홀로 감당하기 힘든 세계관들과 싸우기 위해 WEA에 남아서 함께 활동도 하며 또한 개혁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주도해야 할 것이다. 계속 개혁주의적 목소리를 내야 하고 WEA에 남아 있으면서 선교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하겠다.

5) WEA 제5연구

(성남용 교수, 한국교회의 WEA 논쟁과 지향해야 할 과제들)

WEA의 신학은 대체로 건전하다.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자는 로잔의 세계 복음화 운동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설립 배경이 성경적이었고, 사역이 성경적이다.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 교회 협력을 교회 혼합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청교도들이 모두로 삼았던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와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격언을 마음에 품고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의 협력을 할 수 있다. 1) 본질적인 것에 동의하는 신학적 동반자, 2) 공동의 선교적 과제를 위한 사역적 동역자, 3) 건강한 사회와 세계 평화를 위한 인류애적 협력자로서 협력할 수 있다. WEA의 신학적 범주가 조금 넓을 수는 있다. 교회 간 협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와 신학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사역적 동역자가 되기에는 충분히 건전하다. 그렇다면 WEA와의 교류와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교회가 신학하는 목적을 점검해 봐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도구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지만 세상의 교회는 초라하고 누추하다. 때때로 탄식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려 하신다. 그렇다면 교회의 신학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며,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자들과 신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소위 신복음주의자들이 함께 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함께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칫 자신의 시각으로 남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다.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더 큰 책임이 있다. 귀만 기울이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나 환상을 들을 수 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함께 서로에게 거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게 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악의 삼위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의 세력이다. 교회는 세상의 허무주의, 인본주의, 과학주의, 거짓 종교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온갖 이데올로기와 싸워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세속주의가 급팽창하고 있다. 2005년 46%였던 무종교인이 2018년 현재 56%로 늘어났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게 한다. 지상의 교회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다. 귀하게 여기고 협력해야 한다. 영적 전쟁을 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싸우려 할 수 있다. 힘을 모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이번 연구 후에도 비판자들은 여전히 WEA를 비판할 수 있다. 그들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비판자들의 순수함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찢고, 피를 흘리게 하며, 해롭게 할 수도 있다. 선한 의도가 있다면 선한 결과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선도해 나갈 힘이 있다. 우리 시대의 그루터기요 남은 자들이다. 우주적 교회에 대한 선교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5) WEA 공개질의 (신학부)

[총회 신학부의 공개 질의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061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대표전화 : 02)559-5643 / 팩스 : 02)539-0203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330,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KOREA.
TEL+82-2-559-5643, FAX:+82-2-568-7456

Dear Dr. Thomas Schirmacher:

Greetings in the name of the L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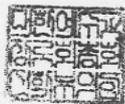
Please let me introduce myself. I am in charge of Theological Committee,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he 103th annual general assembly has assigned the Theological Committee to investigate World Evangelical Alliance from theological point of view. It is because there was a motion not to make any relation with WEA. The assembly decided to assign the Theological Committee of the investigation in order to decide the motion on the 104th annual assembly, which will be held in Seoul on September 23 through 27, 2019. Would you please kindly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that are raised by some of our members?

1. What is your position on religious pluralism? Some accuse that WEA is open to religious pluralism and denies the uniqueness of Christ for the salvation. Please let us know if you are open to the thought that there are other ways of salvation except Jesus.
2. What is your position on WCC? They say that you told at the 10th WCC meeting that WEA is in accord with WCC. This has caused a problem because our denomination decided not to relate with WCC because of WCC's religious pluralism and other theological issues. What do you mean by your statement? In what points is WEA in accord with WCC?
3. Are you theologically inclusive? Are you open to liberal theology, Roman Catholic Church, and/or Communism?
4. We heard that you announced a statement for mission and evangelism with Roman Catholic Church that you are opposed to evangelism for *conversion*. What do you mean by this?

I a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Thank you in advance.

Sincerely in Christ,


Rev. Changsoo Seo
Chief, Theological Committee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Dear Dr. Thomas Schirmacher:

Greetings in the name of the Lord.

토마스 쉬르마허 박사님께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Please let me introduce myself. I am in charge of Theological Committee,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he 103th annual general assembly has assigned the Theological Committee to investigate World Evangelical Alliance from theological point of view. It is because there was a motion not to make any relation with WEA. The assembly decided to assign the Theological Committee of the investigation in order to decide the motion on the 104th annual assembly, which will be held in Seoul on September 23 through 27, 2019. Would you please kindly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that are raised by some of our members?

1. What is your position on religious pluralism? Some accuse that WEA is open to religious pluralism and denies the uniqueness of Christ for the salvation. Please let us know if you are open to the thought that there are other ways of salvation except Jesus.
2. What is your position on WCC? They say that you told at the 10th WCC meeting that WEA is in accord with WCC. This has caused a problem because our denomination decided not to relate with WCC because of WCC's religious pluralism and other theological issues. What do you mean by your statement? In what points is WEA in accord with WCC?
3. Are you theologically inclusive? Are you open to liberal theology, Roman Catholic Church, and/or Communism?
4. We heard that you announced a statement for mission and evangelism with Roman Catholic Church that you are opposed to evangelism for conversion. What do you mean by this?

먼저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부 부장입니다. 103회 총회는 신학부에 신학적 관점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WEA)을 연구하라는 과제를 신학부에 위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회가 WEA와의 교류를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회는 2019년 9월 23-27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104회 총회에서 이 청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학부에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 총회 회원들에 의해서 제기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해주시겠습니까?

1.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WEA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WEA는 종교다원주의에 열려 있고 구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생각에 WEA가 열려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WCC에 대한 WEA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산에서 열린 WCC 제10회 총회에서 박사님께서는 “WEA는 WCC와 입장을 같이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은 WCC의 종교 다원주의 입장과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 때문에 WCC를 배격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점에서 WEA가 WCC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3. WEA는 신학적으로 포용적입니까? WEA는 자유주의 신학, 로마 카톨릭 교회, 공산주의에 열려 있습니까?
4. 우리는 WEA가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를 반대하는 선교와 전도에 관한 선언서를 로마 카톨릭 교회와 함께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고대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p>I a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Thank you in advance.</p> <p>Sincerely in Christ,</p> <p>Rev. Changsoo Seo Chief, Theological Committee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p>	<p>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p> <p>서창수 목사 신학부 부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p>
---	---

[WEA 신학 위원장의 답변서]

<p>Dear Rev Seo,</p> <p>this is a personal letter from my side, which answers your question concerning myself as a person and concerning my personal theological convictions. I assume that our Secretary General will answer officially for WEA and answer your questions as it relates to the overall position of WEA.</p> <p>I am Bishop of the theologically Reformed global church community called Community Messianica (https://www.youtube.com/watch?v=AcQILf9nwkY , https://vimeo.com/269102985), which is made up out of approximately one million converts from Islam to Christianity. Our church is involved in most dangerous evangelism to the Muslim world and we have martyrs almost every day. I never would be in this position, if I would believe in religious pluralism, conciliar-ecumenical theology, liberal theology and higher criticism, communism or would tolerate a Catholic view of salvation. I myself and our church absolutely believe, that salvation can be found only and only in the death of Jesus Christus on the cross, that the gospel of</p>	<p>서창수 목사님께,</p> <p>이 편지는 개인적인 편지이며,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신학적 확신으로 대답해드리는 것입니다.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WEA의 전반적인 입장은 WEA의 총무가 공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저는 신학적으로 “커뮤니티 메시아니카”라고 불리는 개혁주의 교회 (https://www.youtube.com/watch?v=AcQILf9nwkY , https://vimeo.com/269102985)의 주교입니다. 이 교회는 대략 이슬람으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백만 명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위험한 모슬렘 전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일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컬 신학, 자유주의 신학, 고등비평,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다거나, 구원에 관한 카톨릭 견해를 포용하는 입장에 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과 우리 교회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복음이 성경적 진리의 중심에 있으며, 성경은 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p>
---	--



the Reformation is the center of Biblical truth, and that the Bible is the inerrant and infallible Word of God. Whoever does not believe in Jesus Christ will go to hell.

Yes, I meet heads of states, politicians of all levels, top leaders of non-Protestant churches and of the world's religions, but everywhere I clearly confess Jesus Christ as truth and salvation.

I have published more than 100 books and thousands of articles, so it is easy to get to know and proof my theological position on many questions. The originals are always in German, the the commented list at <https://www.thomasschirmmacher.net/bio/books-published/> This includes several books against marxism, communism, Roman Catholic theology, the religious pluralism view of WCC, homosexuality, higher criticism, liberal theology etc.

Now to questions 1. to 4. in specific.

1. Religious pluralism: I have published several books and given many speeches against religious pluralism. I believe in the need to talk with leaders of other religions concerning political issues in democratic societies and in „dialogue“ that includes presenting the gospel to religious leaders, but I am totally opposed to any idea, that anything else than Jesus Christ himself through the gospel he created on the cross can save anyone from hell.

Prof. Peter Beyerhaus for decades was one of the foremost critics of WCC. I am his

물론 저는 국가의 수장들, 여러 계층의 정치인들, 개신교회가 아닌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역주: 아마도 천주교나 동방정교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하였고, 수천 개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저의 신학적 입장을 쉽게 알 수 있고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는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다음의 링크에 설명이 곁들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thomasschirmmacher.net/bio/books-published/> 이 책들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로마 카톨릭 신학, WCC가 가지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견해, 동성애, 고등비평, 해방신학 등에 대한 저의 반대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질문 1-4번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종교 다원주의에 대하여: 저는 종교 다원주의에 반대하여 몇 권의 책을 출간하였으며 여러 번에 걸쳐서 강연을 해왔습니다. 저는 민주 사회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관하여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피터 바이에르하우스 박사는 수년간 WCC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였고, 그분의 70세 헌정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논문집을 책임편집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논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변증하는 논문들이었습니다.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buecher/kein-anderer-name/>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만날 때, 저는 항상

student and edited his Festschrift for his 70th birthday „No other Name“ with dozens of contributions defending the uniqueness of salvation in Christ alone: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buecher/kein-anderer-name/>

When meeting other religious leaders, I always use the wording „Christ is our business card“, eg here

<https://www.thomasschirmmacher.net/blog/christ-is-our-business-card/>

I am know for dozens of public statements, whenever churches or synods questions the uniqueness of Christ, eg

<https://www.thomasschirmmacher.net/blog/requirements-for-the-dialogue-between-christians-and-muslims/>,

<https://www.thomasschirmmacher.net/blog/criticism-of-the-real-existing-dialogue-with-islamic-associations/>

I wrote many books on a very conservative view of evangelical world mission, eg „Biblical Foundations ...“

https://www.bucer.de/fileadmin/dateien/Dokumente/Buecher/WoT_11_ThSchirmmacher_-_Biblical_Foundations_-_69_Biblical_Theses.pdf or „Missio Dei“

https://www.bucer.de/fileadmin/dateien/Dokumente/Buecher/WoT_10-Thomas_Schirmmacher-Missio_Dei.pdf

2.A. Busan: I never said something like this in Busan and if so, I would not have spoken on behalf of WEA. I am glad that everything in Busan has been filmed or printed, so whoever says something like this about me should be able to present the evidence. My polite speech in Busan has been typed from the recording and is on the website of WCC: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함입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https://www.thomasschirmmacher.net/blog/christ-is-our-business-card/>

저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의심하는 여러 교회와 대회들의 선언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https://www.thomasschirmmacher.net/blog/requirements-for-the-dialogue-between-christians-and-muslims/>,

<https://www.thomasschirmmacher.net/blog/criticism-of-the-real-existing-dialogue-with-islamic-associations/>

저는 복음적 세계 선교에 관한 많은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책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https://www.bucer.de/fileadmin/dateien/Dokumente/Buecher/WoT_11_ThSchirmmacher_-_Biblical_Foundations_-_69_Biblical_Theses.pdf

https://www.bucer.de/fileadmin/dateien/Dokumente/Buecher/WoT_10-Thomas_Schirmmacher-Missio_Dei.pdf

2.A. 부산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부산에서 저는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제가 WEA를 대변하지 못한 셈입니다. 부산에서의 모든 것들이 녹화되고 인쇄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에서 제가 했던 예의를 갖춘 발언이 녹음되고 녹취되었으며, WCC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assembly/2013-busan/messages-to-the-assembly/greetings-from-the-world-evangelical-alliance>

WCC 부산 총회에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로 인해 저는 WCC 지도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WCC 총회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cuments/assembly/2013-busan/messages-to-the-assembly/greetings-from-the-world-evangelical-alliance

After my statement on Korea, I was heavily criticised by the WCC leadership because there was a decision by the GA in Busan not to mention the topic North Korea and I „misused“ my word of greeting. They also said, that there would be a lot of hidden channels into North Korea, which would get into problems. I answered, that Evangelicals have much more connections into North Korea and still speak up publically against communism and dictatorship.

Later a minister of the government (I forgot the name) met with me and two WCC leaders and criticised WCC for not criticising North Korea, even though they took a lot of money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ey said, they should use WEA as an example.

2.B. WCC: It would need a book to list all topics in which WEA disagrees or agrees with WCC. It also often is impossible to say this, as WCCs position is vague and ever changing. WCC has three components: Roughly one third are Orthodox churches or other non-Protestant churches, one third are liberal churches from Western countries and one third are more conservative churches from the Global South. In moral issues (eg homosexuality) we are in line with the Orthodox churches and many conservative churches and totally opposed to the liberal churches. But WCC has not

제가 인사를 하면서 북한을 언급하여 인사하는 기회를 잘못 사용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은밀한 채널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더 많은 커넥션이 있으며, 여전히 저는 공산주의와 독재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정부 관계자(이름은 잊었습니다)가 저와 두 명의 WCC 인사를 만났는데, 그 분은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왜 북한을 비판하지 않느냐고 WCC를 질책하였습니다. 그분은 WEA처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2.B. WCC에 대해서: WEA가 WCC와 어떤 점에서는 동의하고 어떤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하려면 책 한 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WCC의 입장은 모호하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WCC는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1/3은 정통(Orthodox) 교회 (즉 개신교가 아닌 교회들), 1/3은 서방 세계의 자유주의 교회들, 1/3은 남반부에 있는 대체로 보수적인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예를 들어, 동성애), 우리는 정통(orthodox) 교회와 여러 보수적인 교회들과 같이 하며, 이런 점에서는 자유주의 교회들과 반대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WCC는 수년 동안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적인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정치적 이슈들, 예를 들면, 인신매매 문제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WCC와 협력합니다. 하지만 종교 다원주의나 복음을 전하면서 선행을 높은 차원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3. 포용주의 신학에 대하여: 저는 포용주의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말을 단 한 문장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진리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개혁파 조직신학과 윤리를 번역해서 독일어로 게시하였습니다.

issued any official statement on homosexuality for many years. We cooperate with WCC on several socio-political issues like human trafficking, but are opposed to any statement favouring religious pluralism or putting doing good on one level with preaching the gospel.

3. Inclusive theology: I never have spoken one sentence in favour of Inclusivism and think, that their only can be one Biblical and Evangelical truth. I translated and edited the German version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and a Reformed Systematic Theology and Ethics in 8 volumes: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buecher/der-evangelische-glaube-kompakt/>,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theologie/ethik/>

3.A. Liberal theology: I am opposed to any form of liberal theology. My view on inerrancy and infallibility of the Bible can best be seen in my book „Koran and Bible“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https://www.bucer.de/fileadmin/dateien/Dokumente/Buecher/WoT_7_-_Thomas_Schirmmacher_-_The_Koran_and_the_Bible.pdf

Already as a student I was involved with the Chicago Declaration of Biblical Inerrancy and I edited the book with the German translation, and therefore till today most liberal theologians in Germany see themselves as enemy no. 1: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theologie/bibeltraue-in-der-offensive/>.

This includes ethical topics. No German has written more books and articles against tolerating homosexuality, eg in my ethics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theologie/ethik/>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buecher/der-evangelische-glaube-kompakt/>,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theologie/ethik/>

3.A.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저는 어떤 형태의 자유주의 신학도 반대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하여 무오하고 오류가 없다는 견해를 코란과 성경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https://www.bucer.de/fileadmin/dateien/Dokumente/Buecher/WoT_7_-_Thomas_Schirmmacher_-_The_Koran_and_the_Bible.pdf

이미 학생 때, 저는 성경 무오에 대한 시카고 선언에 관련한 바 있으며, 그 책을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은 제일의 원수입니다.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theologie/bibeltraue-in-der-offensive/>.

이것은 윤리 주제를 포함합니다. 그 어떤 독일 학자도 저보다 더 동성애를 용인하는 것을 반대하는 책과 논문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theologie/ethik/>.

2014년에 독일의 개신교회는 대회에서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찬성하는 표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여 책을 한 권 썼으며, 수 주 동안 언론을 통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blog/die-ekd-orientierungshilfe-ein-linkes-parteioprogramm/> 이것은 제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3.B.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천주교의 구원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저의 책, "면죄부"에 대한 책일 것입니다.

<https://www.bucer.de/ressource/details/indulgences.html> (영어판은:



gie/ethik/. In 2014 the Protestant Church of Germany voted in their synod to accept same sex marriage. I wrote a whole book against it which kept me in a huge media fight for weeks: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blog/die-ekd-orientierungshilfe-ein-linkes-parteioprogramm/> and nearly ruined my career at home.

3.B. Roman Catholic Church: The strongest criticism of Catholic view of salvation on the market is - as far as I know - my book against „Indulgences“:

<https://www.bucer.de/ressource/details/indulgences.html> (American edition:

<https://wipfandstock.com/indulgences.html>).

My shortest and strongest criticism of the RCC can be found in my article: A Critique of Catholic Canon Law, now a chapter in a book: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buecher/english-studies-in-church-leadership/> As typical example how I comment on Vatican issues, see the end of my article „An evangelical view of the Vatican misuse summit“ in

<https://www.worldevangelicals.org/tc/publications/TN-48-2.htm>

3.C. Communism: I have written extensively against communism in the area of economy, in the area of education, in the area of family and have stated often that communism so far has being responsible for a larger number of martyred believers than even Islam. My book against Marxism was distributed secretly in Eastern Germany for a long time and only later published in Germany and is still in print: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gesellschaft/marxismus-opium-fuer-das-volk/> My

<https://wipfandstock.com/indulgences.html>) 천주교에 대한 짧지만 강력한 비판은 저의 논문 A Critique of Catholic Canon Law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재 책의 한 장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buecher/english-studies-in-church-leadership/> 바티칸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려면, 저의 논문 An evangelical view of the Vatican misuse summit을 보십시오.

<https://www.worldevangelicals.org/tc/publications/TN-48-2.htm>

3.C. 공산주의에 대하여: 저는 경제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가정의 측면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글을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보다도 공산주의가 더 많은 순교자들을 냈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제 책은 오랫동안 동독 지역에서 비밀리에 배포되었고,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어 오늘도 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gesellschaft/marxismus-opium-fuer-das-volk/> 공산주의식 교육에 대해 반대하는 저의 주요한 책은 많은 복음주의 학교를 설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wp-content/uploads/2005/02/Bildungspflicht_statt_Schulzwang_Buch.pdf

4. 개종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종을 위한 전도를 반대한다는 말이나 개종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은 제가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개종시키길 원합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든 아니든 말입니다. 이미 신자라고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천주교인들을

major book against a communist view of education led to the founding of dozens of Evangelical schools:

https://www.thomasschirmmacher.info/wp-content/uploads/2005/02/Bildungspflichtstatt_Schulzwang_Buch.pdf

4. Opposed to evangelism? There never has been any statement from my side against evangelism for conversion or any negative statement on conversion, just the opposite is true. We call everyone to conversion, whether he calls himself a Christian or not. If he happens to be a believer already, he surely will be happy about it.

I also have defended doing evangelism among any kind of nominal so-called Christians, including Catholics. I attach my newest article, where I together with a colleagues defend proselytism in the sense of Christian changing from one church to the other against the accusations of WCC (Elmer Thiessen, Thomas Schirmmacher. "An Evangelical View of Proselytism".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42 (2918) 4: 308-318)

There are no plans for any statement of WEA with the RCC on mission and evangelism. If I am said to have announced this, I would like to see the evidence. The only existing statement of this kind is „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of 2011. You will find the sources in the attached „Guidelines“, also all other texts, in which WEA and RCC have discussed and listed their differences.

Feel free to ask for more evidence,

포함하여)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저의 새로운 논문을 첨부합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개종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즉 WCC의 비난에 반대하여, 한 교회로부터 다른 교회로 개종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Elmer Thiessen, Thomas Schirmmacher. "An Evangelical View of Proselytism".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42 (2918) 4: 308-318

WEA와 천주교가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어떤 합의된 선언서를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증거를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유일한 선언서는 "다 종교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라는 2011년의 글입니다. 다음에 첨부된 자료에서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글들에서, WEA와 천주교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논의하고 열거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토마스 쉬르마커
WEA 신학 위원장
(번역: 이국진 목사)



Yours, Thomas Schirrmacher Associate Secretary General for Theological Concerns	
---	--

3. 한국교회 일각에서 현재 활동하는 기독교단체들의 설립목적과 성격에 대한 연구의 건

1) 성서한국 연구

(김성수 목사, 성서한국 연구보고서)

성서한국은 “복음으로 민족과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고, 사회적 사명에 헌신할 다음 세대를 발굴, 동원, 훈련, 지원, 파송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2002년 제1회 성서한국수련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매 2년마다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성서한국의 활동력은 매우 활발하여 교회는 물론이고 각 분야에 그들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성서한국은 정관을 통하여 목적, 신앙고백, 목표, 성격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성서한국 정관 제3조 신앙고백 7개 항목 중 4개 항목만 소개하고자 할 때, 정관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들과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우리는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이시고, 종말의 심판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 ②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가장 뛰어난 온 세상의 주이심을 믿는다(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 ③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신앙과 삶의 기초인 성경).
- ④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내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자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믿는다(구원의 총체성과 소명).

그러나 성서한국을 정관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단성이 있거나, 또는 절대적으로 배척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러한 정관을 갖추어 당시 한국교회의 건강한 지도자들에 의해 출발하였지만, 정관에 다 담을 수 없는 세부적인 분야의 내용과 그 이후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정관 외에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히 요청된다.

특히 우리 교단의 성경적 신학적 관점과 어울리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먼저, “오직 믿음/은혜”의 칭의론을 행위를 배제한 진부하고 편협한 교리라고 하며 ‘저급한 잡초가 참 복음의 화초인 것처럼 유통된다.’라고 하며, 둘째로, 창조-타락-구속의 틀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셋째로,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서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전하는 복음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라이트의 표현을 빌려 ‘빈 망토로 만들고 있다.’라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 이전에 ‘흑암’과 ‘깊음’과 ‘하나님의 영’과 ‘물’이 있었다고 하므로 창조 이전의 상태가 無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내용은 성서한국 전체가 아닌, 참여하는 개인들의 주장들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들의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

성서한국에 대하여 성경적 신학적 관점 외에 사회적, 사상적, 그리고 우리 교회들과의 관계에서도 살펴보게 될 때, 매우 긍정적인 면은 신앙의 영역을 대폭 확대시켜서 모든 영역에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예민한 이슈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참여 현장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낙태, 동성애, 페미니즘, 차별금지, 대북문제, 그리고 교회 세습 등등의 예민한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강렬하게 들려오고 있다. 성서한국 전체가 다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하고 개연성이 있는 판단들을, 중요한 모임에서 가감 없이 외치게 될 때, 분명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교회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성서한국은 복음주의 단체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의 구속사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진정한 복음의 정립과 사회적이고 사상적인 관점에서의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자세가 아닌, 복음 안에서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며, 특히 우리 교회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판인 교회를 중심으로 더 좋은 복음의 실천 현장을 만들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 좋은교사운동 연구

(신종철 목사, 좋은교사운동 연구보고서)

1. 좋은교사운동이란 무엇인가?

좋은교사운동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좋은교사운동은 '기독교사 단체 연합운동'을 말한다. 인터넷 검색창(네이버, 다음, 구글 등등)에서 '좋은교사'를 검색하면 좋은교사운동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좋은교사운동은 12개 회원단체와 2개 협력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 회원 약 4,000명이 속해 있는 사단법인이다.

회원단체(12개)	명 칭(가나다순)	인터넷 주소
1	교사 선교회(TEM)	tem21.kr
2	선한교육(E. F. G)	efg.or.kr
3	기독교사회(TCF)	tcf.or.kr
4	기운실교사모임	eduhope.or.kr
5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교사모임	lydia.or.kr
6	성서교육회	bibedu.net
7	성서유니온선교회 교사모임(SUT)	sut.or.kr
8	좋은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GVF)	cafe.daum.net/gvf1
9	한국교사학생선교회(KTSM)	ktsm.or.kr
10	행복교육 실천운동	cafe.daum.net/digoodteacher
11	CCC-TIM 교사 모임	ccctim.org
12	하나님의 교사들(GT)	GODteachers.net
협력단체(2개)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str.or.kr
	청소년 제자 선교회(YDCF)	



2. 좋은교사운동의 특성

- 1) 좋은교사운동 형성에 발판을 제공한 단체는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이다.
- 2) 좋은교사운동은 한국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다른 복음주의 단체들과는 연대한다.
- 3) 좋은교사운동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해왔다.
- 4) 좋은 교사운동의 철학과 정신은 '4가지의 핵심가치(복음, 사랑, 정의, 회복)'로 표현된다.
- 5)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와 논평 및 보도자료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 6) 좋은교사운동은 매월 발행하는 잡지 「좋은교사」와 서적들을 통해 철학과 정신을 활성화 시킨다.

3. 좋은교사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까지 좋은교사운동은 한국교회와 같이 교육계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들의 대부분이 공교육에 속한 기독교사들로서(최근에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사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복음전도운동', '교사소명회복과 내부 자정운동',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공교육 가운데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므로 본 교단 소속 목사들과 교수들은 좋은교사운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좋은교사운동이 한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격려해야 한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평소에 이 단체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에 우리 교단이 앞장을 서야 할 것이며, 특히 2년마다 열리는 '기독교사대회'에 본 교단의 목사들과 교수들이 강사들로 활동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사들은 우리 교단의 개혁신학의 풍성함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좋은 영성으로 성숙함으로 한국 공교육의 현장에서 개혁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3) 복음과상황 연구

(이국진 목사, 복음과상황 연구보고서)

〈복음과상황〉은 1991년 1월에 복음주의권 성도들에 의하여 창간된 기독교 월간지로 창간 당시의 이념과 목적은 로잔 언약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잡지이다. 로잔 언약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상반된 것으로 보지 않고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의무의 두 부분으로 본다는 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복음과상황〉은 단순히 교계 뉴스를 전하거나, 교회나 교계 내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다루는 일반적인 기독교계 신문과는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걸었다. 대신 정의와 화해의 추구,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의 추구,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호소와 같은 주제들이 〈복음과상황〉의 주요 주제가 된 것은 본 교단 소속 교회에게는 낯설기는 하지만 로잔 언약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이해할만한 것이다.

〈복음과상황〉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103회 교단 총회에서가 처음이 아니었다. 이만열 교수는 〈복음과상황〉 20년을 회고하면서 〈복음과상황〉에 기고하는 필자들이 “복음주의권 밖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 대책으로 복음주의권 편집자문위원들이 추가되고 편집인파 위원들을 교체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단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페미니즘 문제 등과 관련된 기고글들이 우리 교단의 입장과는 다른 논조로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복음과상황〉 편집진에서는 개별 기고자들의 입장이 편집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언론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15) 이만열, “〈복음과상황〉 20년을 고민한다” 〈복음과상황〉 (2010.12.26.)

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쪽 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입장을 들려주어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언론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만 하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복음과상황>의 편집부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는지를 게재된 글만으로 편집부의 신학적 사상을 판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물론 <복음과상황>에서 게재되는 급진적인 글들이 여과 없이 젊은 세대들에게 전파되어 신앙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어떤 글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주장까지도 실리기도 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분별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유익한 매체이다. 종종 <복음과상황>을 비롯한 복음주의권 단체에 대한 막무가내식 비판들이 마녀사냥처럼 넘치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극단적 극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비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음과상황>은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우군임에 틀림없다.

<복음과상황>은 교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좀 더 복음적인 글들을 균형 있게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복음과상황>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글들을 기고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만일 <복음과상황>에 실린 글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면, 매체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 아니라, 반론 성격의 글을 어느 매체를 통해서든지 기고해야 한다. 언론 매체를 힘으로 거부하고 눌러 버리는 방식은 지금까지 성공해본 적도 없고,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는 주님의 권고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4)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연구

(이영식 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연구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의 주요 연구진들의 저서와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원은 2009년 11월에 설립을 준비하여 2010년 2월에 시작하였다. 이 연구원에서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연구위원으로는 권연경 교수(송실대, 신약), 김근주 교수(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구약), 김동춘 교수(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조직), 김형원 교수(하나의 교회, 조직), 배덕만 교수(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교회사), 조석민 교수(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신약)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초빙연구위원들이 있다. 또한 현재 서울 2개를 포함하여 대전, 부산, 대구 등 5개 캠퍼스가 개설되어 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 첫째,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기독교의 재구성”이라는 비전 아래, 저술이나 활동들이 한국기독교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름대로 변화를 모색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연구원은 평신도들의 훈련과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국면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기독교적인 대답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오늘날의 기존 한국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우려가 된다. 우리는 사랑을 전제로 한 비판, 교회를 위한 신학,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는 신학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원의 『칭의와 정의』라는 총서에서 보여주는 ‘칭의’ 개념은 개혁주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분들은 행위구원을 부정한다고 하면서도, 칭의 개념에 행위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동춘 교수는 칼빈의 칭의론보다는 오히려 제세례파의 칭의론을 지지하면서, “법정적 칭의론을 넘어 윤리적 칭의론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형식적인 칭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가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김근주 교수는 법정적인 칭의교리가 “끊임없는 자기 최면”으로 사용되고, “정의와 공의의 삶이 설 자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무엇인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으로 혹세무민하는 종교인이 가득하게 된다”고 했다.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이신칭의 교리를 폄하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칭의는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죄인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하다.

셋째, 김근주 교수의 『복음의 공공성』에서 제시하는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비판적 태도, 소돔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가 아니라는 관점은 우리의 신학과는 다르다. 이 책 『복음의 공공성』에서는 “고백서 자체가 신앙을 내용 없는 형식으로, 라이트의 표현대로라면 ‘빈 망토’로 만들고 있다. 신앙고백서 자체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신앙 실천으로 이끈다”라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폄하하고 있다. 또한 김근주 교수는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의 죄악과 관련하여,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단순한 동성애가 아니다. 그들을 ‘동성애자’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동성애 이슈는 소돔, 고모라 본문에서 지극히 지엽적인 부분일 따름이다”라고 했다.

넷째,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에서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또 한번의 비판이 쏟아지고 십일조 등 헌금의 문제를 “미신적인 우상숭배”, “헌금을 착취하는 종교”라고 비판한다. 다섯째, 배덕만 교수의 『한국개신교 근본주의』에서는 국내개신교를 근본주의라고 하고 있다. 초기 한국교회의 시작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개신교를 일관되게 근본주의라는 틀에서 비판하고 있다.

5) 청어람ARMC 연구

(1) 신종철 목사, 청어람 ARMC 연구보고서

2005년 초반 높은 뜻 송의교회(김동호목사 담임)는 교육관 ‘청어람’을 마련하고 여러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에 개방해 운영했다. 여러 단체의 행사들이 공간 ‘청어람’을 기반으로 열렸고, 그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시작된 것이 ‘청어람 아카데미’이다. 아카데미가 태동한 공간의 이름이자 <순자(荀子)> <권학편(勸學篇)>에 나오는 고사 청출어람 청어람(靑出於藍 靑於藍)을 따서 이름을 짓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발전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정치 아카데미로 시작해 문예 아카데미, 기획강좌 등을 열며 정치, 사회, 문화, 신학, 인문학 등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교회에선 잘 열리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강좌들을 열며 기독교 아카데미 운동을 이끌었다.

2010년부터는 교회로부터 독립해 후원구조를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고, 2013년에는 명동을 떠나 신촌에 새 등지를 틀고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때부터 청어람은 공식 명칭을 ‘청어람 ARMC’로 바꾸고 조직을 정비했다. 이것은 (1) 대중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어람 Academy (2) 한국교회와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연구 기능을 담당할 청어람 Research (3) 다양한 액션 프로젝트와 복음주의 운동을 펼쳐나갈 청어람 Mission & Movement (4) 청어람이 연구하고 생산한 콘텐츠를 더 폭넓게 확산, 심화시킬 온라인 미디어플랫폼인 청어람 Communication 등이다.

청어람ARMC의 신학과 신앙은 강좌들과 양희송 대표의 저서들에서 찾아 볼수 있다. 청어람은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좌는 성경적으로 균형이 잡힌 성도로 성장하기 위한 유익한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청어람에서 제공하는 강좌들 가운데는 급진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경향에 가까운 강좌들도 있다는 점은 비록 그 숫자가 소수에 불과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청어람이 공헌을 소개하면

첫째, 양희송 대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교회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신앙생활의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로, 한국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은 주제들을 과감하게 끄집어내어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토론의 장을 형성하고 이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면,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 혐오 문제, 페미니즘 등의 문제이다.

셋째로, 한국교회의 생태계 복원, 특히 신뢰성이 있는 한국교회를 위한 많은 수고를 감당해 왔다. 반면에 청어람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신앙의 이원론적 사고를 제거하고 신뢰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청어람의 시각과 논리는 제도화된 한국교회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해결책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들은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었기는 했지만, 정반대로 이것이 일반 사람들(신자와 불신자)로 하여금 한국교회에 더 많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도 되었다. 동성애나 페미니즘이나 낙태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견해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견해를 접하게 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청어람 아카데미가 다양한 견해를 제공해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기존의 정통적인 입장에서의 강의로 균형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어람의 대부분 강좌가 유익하고 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이정훈 교수, 청어람 ARMC 연구보고서

청어람에 관한 연구는 강연, 북콘서트, 게재된 칼럼, 토크콘서트 등 거의 모든 주요 행사와 활동들이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정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용이했다.

또한 청어람, 성서한국, 기독교청년아카데미, 아름다운마을 공동체, 기윤실, 등의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뉴스앤조이를 통해 거의 빠짐없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이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청어람’이라는 단체의 본질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청어람은 동성애 정치투쟁을 지지하고 그 논리와 주장을 교회 내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수신학을 고수하는 주요 개신교 교단을 동성애와 소수자(여성, 이슬람, 난민 등) 혐오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좌파 정치운동 진영의 인사들과 연대하고 이에 동조하고 있다.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혐오규제 입법과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과 이론들을 교회에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청어람은 낙태를 정당화하는 극단적 페미니즘 단체나 유튜브에서 성을 적나라하게 다루어 기독교적 성윤리와 양립할 수 없는 방송을 제작-유포하는 유튜브와 연대하여 교회 내에 극단적인 페미니즘 이론과 주장들을 확산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소위 복음주의 표방 단체들은 연합하여 광우병 촛불시위 선동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정부 정치투쟁에 참여했으며 제주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과 반미주의에 기초한 좌편향정치운동을 평화운동이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실행해 왔다. 청어람의 활동들은 강연, 인터뷰, 북콘서트, 토크콘서트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최근에도 트랜스젠더에 친화적인 교육에 대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내세워 협력하지 않은 교사가 해고당했다. 또한 기독교인 의사가 수염을 기른 남자를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목사가 LGBT 주거지에서 전도를 위해 노상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당했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정치적-법적 흐름 속에서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침해되고 있는 것이 영국과 캐나다 등,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했던 국가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국내에 알리고 차별금지와 혐오규제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의 입법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을 “가짜뉴스 전파”로 매도하고 일방적으로 동성애 정치투쟁의 논리들을 확산시키는 “뉴스앤조이”와 협력하고, 영국식 차별-혐오 규제관련 법제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활동하는 전문가와 청소년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를 주장사로 초대하여 이들의 논리와 운동을 교회 내에 확산시키고자 청어람은 노력하고 있다.

기독교 윤리와 신학적 숙고과정을 배제하고 “낙태”가 권리(여성의 재생산권)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즘 단체와 협력하여 여과 없이 이들의 주장을 교회 내에 확산시키는 활동도 진행했다.

청어람은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을 차별금지와 혐오규제라는 미명 하에 지지하고 동조하고 있다. 소극적으로 동조와 지지를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러한 문제적 주장들을 기존 보수적 신학을 고수하는 교단에 확산시키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6) 교회개혁실천연대 연구

(임종구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연구보고서)

1.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대한 분석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002년 11월 24일에 조직되었다. 발기인모임으로 2002년 10월 27일 산정현교회(김관선목사 시무)에서 모인 후, 11월 11일 종로 여전도회관에서 창립기자회견을 가졌고, 2002년 11월 24일 산정현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가짐으로 출발했다.

1) 역사

올해로 설립 17년을 맞이하는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그 태동이 단계에서 예정합동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았다. 최초의 발기인 모임과 창립총회의 장소가 예정합동소속교회의 예배당에서 모였고, 최초의 사회자, 최초의 설교자, 축도자도 모두 예정합동소속의 목회자였기 때문이다.

2) 연혁 및 현황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2년에 출범하면서부터 세습반대운동을 시작해서 한국교회 주요 이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성명서와 시위, 기자회견등의 방법으로 개입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문제 제기의 이슈는 교회세습으로 2002년 대흥장로교회에서 C.C.C대표직 세습반대, 금란교회 세습반대, 왕성교회 세습반대, 명성교회 세습반대 등으로 이어졌다. 세습 외에도 개교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사랑의 교회 건축반대운동을 비롯해 전병욱목사 면직촉구, CTS 감경철사장 구속과 관련, 한국찬송가 공회 탈세 의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2.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부분

교회개혁실천연대의 평가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한국교회의 병폐와 환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

근하고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교단이나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목회직 세습, 목회자의 전횡과 일탈, 교단과 기독교 기관을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은 한국교회의 개혁의 대상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2) 부정적인 부분

- (1) 기존교회와의 공감대가 부족하다.
- (2) 개혁주의 교회론에서 다소간 벗어나 있다.
- (3) 기존교회를 설득할 공감의 언어가 결핍되었다.
- (4) 구성원의 편향성이 활동의 편향성을 가져왔다.
- (5) 교회의 환부는 잘 드러났지만 치유에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3) 신학적인 부분(모범정관을 중심으로)

교회개혁실천연대의 모범정관을 보면 교회론에 있어서 개혁주의 교회론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다. 이 책은 추천사에서 백종국교수가 밝힌대로 백교수의 전작에서 밝힌 '사제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백교수의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에 나오는 교회정관 부분을 다시 출간한 것이다. 프롤로그를 쓴 김중희대표는 모범정관의 골자를 '모든 사역자의 임기제 채택',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범정관에서 몇 가지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권징의 항목이 직분 중심이고, 성찬과 관련한 권징항목이 없다.
- (2) 복음적 분업이라는 개념은 개혁주의적인 직분론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만인제사장직을 직분론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오독이다.
-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과 로잔언약은 양립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 (4) 교인의 자격을 교회에 등록으로 하는 것은 통상적인 교회 정치를 벗어나는 것이다.
- (5) 공동의회 회원을 세례교인이 아닌 등록된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는 통상적인 교회 정치를 벗어나는 것이다.
- (6) 제직회 의장에 당회장이 제직회 의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과 서기는 사무관리부장이 겸임한다는 규정은 통상적인 교회 정치를 벗어난다.
- (7) 목양회, 장로회, 집사회를 교회의 합법적인 정규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교회 정치를 벗어나는 것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회의 직분과 사역을 복음적 분업으로 보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실천의 핵심은 목사임기제, 모범정관, 재정의 투명한 집행, 바람직한 담임목사 청빙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 교회론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교회운영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예장합동교단의 입장과 대처

- 1) 예장합동교단의 복음주의 단체에 대한 연구는 정당하고 적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분석과 평가, 대안을 해당 복음주의 단체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전체에 공개해서 재평가(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
- 2) 또한 교단지인 기독교신문이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언론 역할을 한 뉴스앤조이의 기사를 과다하게 재생산한 것은 문제 삼을만하다. 나아가 보도행태 역시 교단의 비평 없이 그대로 내보냄으로써 교단지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고 판단한다.



4.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구 전도관)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대처방안 마련 연구의 건

1) 천부교 연구

(서요한 교수, 자칭 하나님, 천부교 교주 박태선의 신학사상 비판_ 사이비 이단 천부교의 망언록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19년 6월 현재, 한국의 약 100여 개의 사이비 이단 중에서 원조인 천부교의 실상, 특별히 그들의 경전, 소위 망언록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기존교회의 대처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 해에 전 세계 인류의 기대와 희망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새해 첫날(1월 1일), 음 진리교의 한 신도가 일본의 수도 도쿄 번화가에서 교주 아사하라와 추종자 13명의 처형에 맞서 자동차로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2018년 7월 25일, 남태평양 피지에서 신옥주의 이단 행각과 2018년 2월 18일, 강간혐의로 10년 만기 출소한 정명석(JMS)이 60억 원을 횡령하여, 소위 무자본이로 기업을 인수/합병한 일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렇듯 2019년 4월 현재, 한국에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와 천부교를 포함하여 약 100여 개의 사이비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 천부교(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는 1955년 4월 8일, 박태선 장로가 사역 초창기에 창설한 예수교(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명칭을 1980년 1월 1일, 자칭 천부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존의 단체, 예수교를 이탈하여 불법적으로 설립한 사이비 이단 단체이다. 그는 생전에 자신을 3조세의 천부 하나님이라고 선전했으나 1990년 2월 7일 75(1915년 출생)세에 사망하였다. 그 후 그의 셋째 아들 박윤명이 제2대 교주가 되었으나 2005년 5월 이후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다. 그 후 천부교 내의 몇몇 인사들이 교단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은닉하며 갈취하고, 수많은 신도의 인권을 유린하며 온갖 폭언과 폭력, 살인과 살상을 저지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14년 10월 3일, TV조선이 정규 뉴스에 보도한 경주 토암산 불법 시체 3000구 암매장 사건이다.

박윤명과 초중고 시절 이후 지금까지 50년 지기인 허병주 목사는 2013년 2월 1일 법원으로부터 한국 예수교 임시회장으로 판결받았다. 그리하여 허 목사는 친구 박윤명의 생사확인도 물론 그와 약속한 천부교의 적폐청산, 천부교 종탑에 비둘기를 내리고 십자가를 올리는 일과 교단 산하 재산의 사회 환원 및 천부교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을 위해 천부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천부교는 임시회장 허병주 목사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한편 불법 집단의 장로요 사이비 이단을 창시한 교주가 기독교의 경전 성경을 부인하며 왜곡하는 것에 대하여 더는 성경을 모독하거나 왜곡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그러던 중에 2014년 5월, 천부교는 교주 박태선이 행한 설교의 일부 내용을 편집한 「하나님 말씀」을 출간하였다. 그런데 이 책은 교주 박태선을 신격화할 뿐 그들 스스로 정통 교회가 아닌 사이비 이단임을 만천하에 천명하였다. 본서에서 천부 하나님 박태선은 자신을 성경에 기록된 참 감람나무, 동방의 한 사람, 이슬성신, 생명수라며 자신을 신격화하였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 롯과 다윗, 바울을 왜곡하며 부정하고, 특별히 구원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복음서를 음해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피, 예수님과 어린양,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천국을 부정하고 자신이 만든 천국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그는 성경 말씀의 왜곡과 예수님을 모독하고 부인하며 자신이 바로 참 구원자요 어린양이며 천국을 완성할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수임안건 신학부 최종 보고

1. NCCK와 로마 가톨릭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의 배교행위 규정과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건

1) NCCK와 로마 가톨릭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 배교 행위로 규정

1959년 우리 총회는 WCC에 대하여, “WCC를 영구히 탈퇴하고,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014년 제99회 총회는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 운동에 대한 총회입장 및 대처의 건에 대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가톨릭과 정교회 간에 합의한 신앙과 직제일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은 “본 총회의 신학 사상과 맞지 않음으로 반대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NCCK와 로마 가톨릭(한국천주교회), 한국정교회에서 시작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과 직제협의회’에 대하여, 1959년 우리 총회가 WCC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배격할 결의 정신과 또한 제99회 총회결의대로, 우리 총회의 신학 사상과 맞지 않음으로 반대하고 배격하는 것이 마땅하다.

2)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의 건

일반적으로 ‘이교’라 함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을 말한다. ‘이단’과 ‘이교’는 다르다. 총신 교수들의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은 우리 교단의 개혁신학적 입장에 부합하지 않은 인본주의적 신학들이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로마 가톨릭을 이단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수긍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세를 준다. 다섯 명의 총신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오직 한 명이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해야 한다고 매우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 세 명의 교수들은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한 명의 교수는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가톨릭의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교 지정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총신 교수들의 논문을 종합해 보면 대다수의 총신 교수들은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 교단과 동일한 신학적 입장을 표명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세계 각처의 장로교단과 개혁교회 교단들 가운데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할 곳은 아직까지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하여 볼 때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이하 WEA)와의 교류 금지

사실 우리 교단이 공식적으로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교단 차원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이단’이 아닌 이상에 우리 교단이 교류할 것인가 아니면 단절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논의 자체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 개인적으로, 학문적 영역 속에서, 연구 단체를 통하여 참여하고 있는 실정하기에 교류단절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관련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다섯 명의 연구 결과, 거의 대부분의 교수가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의 교류 단절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학부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신학적으로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공개 질의하였다. 이에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신학위원장 토마스 슈르



마허가 보내온 답변서를 보내 왔으며(보고서에 실린 내용 참조), 이를 검토해 보면 우리 교단이 지켜오고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세계복음주의연맹(W.E.A)'와의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한국교회 일각에서 현재 활동하는 기독교단체들의 설립목적과 성격에 대한 연구의 건

1) 성서한국

성서한국의 일부 강좌에서는 우리 교단이 그동안 보수적 관점에서 가르쳐온 낙태문제,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 페미니즘에 대하여 진보적 견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강한 주장들은 자칫하면 우리 교단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교단 내의 교회들에게 신학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교단적 입장에서 성경에 입각한 명백한 가르침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교단 산하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개인적으로 이미 성서한국에 참여하거나 혹은 앞으로 참석하여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하여 교단 산하 교회의 담임목회자 및 당회의 적절한 지도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2)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합운동(대략 4,000여 명의 회원)으로 많은 교사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합단체이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교육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교단의 많은 목회자와 교수들은 좋은 교사운동 기독교 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교사』 잡지에 좋은 글을 기고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기독교사대회'에 강사 등으로 활동하여, 공교육의 현장에서 개혁신학과 신앙을 가진 기독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이다.

3) 복음과 상황

〈복음과 상황〉은 복음적 관점에서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 매체로서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온 복음주의 단체이다. 대체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건전한 논의들이 있으나 일부 주제들에 있어서는 교단의 입장과는 다른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글들이 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글들은 편향적인 시각을 줄 수 밖에 없다. 〈복음과 상황〉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성숙을 위한다면 교계 및 우리 교단의 우려를 인식하고 좀 더 복음적인 글들을 균형 있게 실어줄 것이 요청된다. 또한 우리도 〈복음과 상황〉의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글들을 기고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4)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의 사역들은 한국교회 상황에서 그 열의는 공감이가고 활동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의 저서들과 강연들을 살펴보면 '한국교회에 대한 지나친 비판', '이신칭의에 대한 관점',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 '한국 개신교를 근본주의로만 평가하려는 점' 등은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해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우려할 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 소속 교회의 성도들의 이 단체의 세미나 및 신학 혹

은 인문학 교육에 대한 참석하여 공부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담임목사나 혹은 당회의 적절한 가르침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청어람 ARMC

청어람 ARMC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유익한 강좌들과 저서들을 한국교회에 소개하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게 하는데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에서 발생된 좋지 않은 문제점들을 드러냄으로 한국교회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온 것 역시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어람의 일부 강좌들, 예를 들어 동성애,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낙태 등에 관한 열려 있는 논의와 가르침 등은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우려할 점이 있으며, 자칫하면 우리 교단 교회의 성도들, 특히 젊은이에게 신앙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청어람 ARMC'에 관한 참석 여부와 활동에 관하여는 신앙생활의 유의 여부에 따라서 담임목회자 및 당회의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긍정적이나 그 방향성이 성경적이고 장로교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민주적 교회운영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칫하면 장로교 원칙의 본 교단 소속 교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담임목사 및 당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가르침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구 전도관)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대처방안 마련 연구의 건

연구 논문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물론 총회(예장 합동) 산하 모든 성도가 사이비 이단 천부교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며, 이를 통해서 혼란에 빠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며, 성도 각자가 영적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신학부 청원의 건

신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1) 개혁주의신학대회
- 2) 신학연구세미나
- 3) 총회 수입 안건 연구 및 자료집 제작

2. 예산 총 4,000만원

- 1) 회의비 : 1,000만원
- 2) 연구비 : 2,000만원
- 3) 자료집 제작비 : 신학부 연구자료를 총대들에게 배부할 제작비 : 1,000만원

2019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부장 서창수
서기 유응상